

조신성의 민족운동과 해방 후 남한에서 정치적 역할

윤 정 란*

<차 례>

1. 서 론
 2. 조신성의 민족운동
 - 1) 민족운동가로서 성장배경
 - 2) 민족운동의 전개
 3. 해방 후 남한에서 정치적 역할
 - 1) 월남 동기
 - 2) 남한에서 정치적 역할
 4. 결 론
-

1. 서 론

한국 최초의 여성 기자로 활동했던 최은희는 1956년 월간지 『여성계』에 「애국여성 조신성 할머니」라는 글에서 조신성에 대해 “한평생 애국운동에 몸을 바치신 분이다. 그는 동족을 위하여 가시덤불을 헤쳐고 엉겅퀴에 피를 흘린 이름 그대로 미쁘고 가룩한 여성인 동시에...”¹⁾라고 표현하였다. 최은희의 평가처럼 조신성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과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물이다.

그에 대해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기자로서 기독교 개혁을 제창하였던 오기영도 조신성에 대해 ‘여걸’로 평가하면서 “조신성이라하면 우리는 얼른 근우회 말엽시대의 중앙집행위원장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양사람에게 그를 물으면 그의 과거에서 평양 진명여학교의 교장시대를 연상케합니다. 또 평남 오지, 덕천, 영원, 맹산 등지에 가서

* 국가보훈처 연구관 (jragnes@hanmail.net).

1) 최은희, 「애국여성 조신성 할머니」, 『여성계』 1956. 11, 189쪽.

조신성을 물으면 기미운동 당시의 지접 운동에 투신했던 그 때의 회고한 ‘허사시까미’한 나이먹은 신여성을 말해줍니다”²⁾라고 하면서 그의 다양한 민족운동 진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신성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사회적으로 자주 거론되었다. 1920년대, 1930년대에 발행되었던 『개벽』, 『신여성』, 『여성』, 『신가정』 등에서 그에게 대해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으며,³⁾ 해방 이후에도 진솔한 바와 같이 최은희가 애국 여길로 다루기도 하였다.⁴⁾

이와 같이 많은 활동을 벌였던 일제강점기와 사망한지 몇 년이 채 안된 1950년대까지는 한국근대여성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었으나 그 이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그에게 관한 생애와 활동에 관한 소개 혹은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조신성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잡지가 『신가정』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1980년대 영인본에서는 그의 이력에 대한 글이 전부 빠져 있다. 조신성은 이처럼 잊혀진 인물로 있었으나 1995년, 1996년에 박용옥과 신영숙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⁵⁾

박용옥은 조신성의 출생, 길훈, 유학 등의 성장배경과 그의 여성교육운동, 항일무장투쟁, 근우회운동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를 한국근대여성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위치 짓고 있다. 신영숙은 조신성을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민족주의 여성운동가로 위치 짓고 그를 사회주의여성운동가 허정숙과 생환, 이념, 운동양상 등에 대해 비교하면서 그를 평가하고 있다.

이 두 글은 모두 조신성의 일제강점기 활약 양상에 초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어 그의 성장배경, 민족운동의 활동양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져 있다. 그러나 해방 이후 그의 활동에 대해서

2) 오기영, 『조신성론』, 『신가정』 1934년 4월호, 91쪽.

3) 박용옥, 『조신성의 민족운동과 의인활동』, 『한국여성항일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6, 34쪽.

4) 최은희, 앞의 글, 189쪽.

5) 박용옥, 앞의 논문; 신영숙, 『일제시기 여성운동가의 삶과 그 복성연구 — 조신성과 허정숙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제150집, 1996.

는 제대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그가 어떤 동기로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월남했는지, 그리고 이후 그의 활동 성격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박용옥의 글에서만 소략하게 다루고 있을 뿐이다. 그는 조신성의 월남 동기에 대해 “그가 공산당을 동포로 보지 않았던 것은 근우회 운동의 경험과 민족유일당의 와해를 직접 경험한데서 나온 의지였다고 생각된다”⁶⁾고 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 보다는 해방 이후 다양한 정치, 사회적인 요소에서 파악해야 된다고 본다. 1930년 근우회 집행위원장으로 그를 추대한 것도 대부분 사회주의 여성들이었으며 근우회가 해체된 것은 일제의 정책적 요인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일제 총독부는 한국인의 합법적인 조직을 인정하기 않았기 때문에 근우회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근우회 운동의 경험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방 후 여러 정치, 사회적인 요인에서 조신성의 월남 동기를 찾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여성지도자로 거론되던 한 인물이 어떤 배경 하에서 남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1950년대 이후 왜 남한에서 잊혀진 인물이 되었는지에 대해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1장에서 기왕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조신성이 해방 전에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2장에서 해방 후 그의 정치, 사회적인 위상을 알기 위해 그의 월남 동기와 남한에서의 정치적 역할을 밝혀보려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여성지도자였던 한 인물이 우리 사회에서 왜 잊혀진 인물이 되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2. 조신성의 민족운동

1) 민족운동가로서 성장배경

구한말, 일제강점기 한국의 많은 여성들은 민족문제와 여성문제라는 이중굴레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이기보다는 현실을 그대로 인

6) 박용옥, 앞의 책, 56쪽.

정하며 수동적으로 살아갔다. 그 반면 소수의 여성들은 동시대를 살았 으면서도 인설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 대표적인 여성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신성이다. 그는 많은 다른 한국여성들과 달리 어떤 배경 하에 있었기 때문에 민족운동가, 여성운동가로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지금까지 조신성에 대해 고찰한 글을 보면 민족운동가로서 성장배경에 대해 단순히 민족운동을 하기 이전의 생애 곧 출생, 혼인, 유학 등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조신성이 민족운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특수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민족운동가가 되기 이전 그를 둘러싼 환경과 민족운동가로서 성장하게 된 요인과의 관계들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전에서는 그가 민족운동가로서 성장하게 된 요인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요인이 혈연단신과 과부라는 여건이었다. 조신성은 1874년 10월 3일 평안북도 의주에서 약 60리 떨어진 비현역 근처에서 태어났다. 그가 어머니 한씨의 배속에 석달 쉼 있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린 상태였다. 9세 되던 해에는 어머니 마저 독사에 물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 후 고모와 함께 살다가 16세 되던 해에 당시의 풍습대로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을 하였다. 결혼생활 6년만에 망탕한 남편은 가산을 탕진한 후 아편을 먹고 자살해 버렸다. 결국 조신성은 22세에 과부가 되었다.⁷⁾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박용옥의 주장대로 “자신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외적제재(시가를 비롯한 남편)로부터 해방된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스스로 포착할 수 있었다”⁸⁾는 측면도 있지만 생계를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17, 18세기부터 과부가 된 여성들은 암암리에 새혼이 용인되는 분위기

7) 인기자, 「조신성이사 아전」, 『신가정』 1934년 4월호, 86~87쪽.

8) 박용옥, 앞의 논문, 37쪽.

기였다. 양반 여성들의 경우 재혼을 하면 자손의 관직 진출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수절을 할 수 밖에 없었으나 하층민 여성들의 경우에는 관련이 없었으므로 자신이 원하면 재혼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1894년 갑오개혁 당시 법률상으로 과부에게도 재혼을 허락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당시 여성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힘들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시가가 있는 과부는 수절이 가능하였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친가에 머물러야 했다. 따라서 하층민 여성일 경우 수절할 이유가 없었다.⁹⁾

갑오개혁 당시 과부에게 재혼을 허락한다는 법률 조항의 신설은 결국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신성도 굳이 수절을 하면서 경제적인 뒷받침도 해 줄 수 없는 시가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친가에 갈 수도 없었다. 혈혈단신이 되어버린 그는 자신의 생계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조신성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만들어냈던 것으로 보인다. 곧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조신성은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민족운동가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기독교와의 만남을 통해 그는 자신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사산한 이후였다. 다음의 기록과 같이 조신성은 1897년 평북 의주읍교회에서 선교사 배위량(W.M. Baird)에 의해 기독교 신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義州郡邑內教會가 振興하다. 蓋義州난 我國西邊에 遠在하야 宣教師의 顯見이 稀疎함으로 教會가 衰微不振하더니 是時에 裴魏兩 宣教師가 來到하야 福音을 宣布하며 會務를 整頓하니 信者輩出이라 … 威遠面人 金俊鍵 金昌鍵 金亨鍵 金應鍵 劉天福 李元局 黃氏思聖 趙氏信聖 崔氏俊信 등이 同時 歸主하니 是皆有力者라 後來教會에 多大한 功力이 顯著하니라!¹⁰⁾

9) 정지영, 「조선 후기 과부의 또 다른 선택」, 『역사와 문화』 5, 2002, 254쪽.

평북 의주는 한국교회사에서 매우 뜻 깊은 지역이다. 1879년 중국 선교사 매킨타이어(John Maclintyre)에 의해 세례를 받은 백홍준이 1880년대 초기에 의주에서 요리문답책을 운영하면서 신앙공동체가 싹트기 시작했다. 1885년 18명의 신자로 늘어나자 예배처소가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의주의 자생교회였다.¹¹⁾

그러나 그 후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교회가 점차 쇠퇴하였으나 1897년 선교사 배위량의 방문으로 신자가 많이 배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위량은 1891년 북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하여 1897년 평북지방을 7주간 답사여행을 하였다. 이 때 쇠퇴해가는 의주군 읍내교회를 재정비, 강화하였는데, 당시 과부로 지내던 조신성도 이 시기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여성들 중에서는 과부들이 많았다. 당시 한국사회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과부가 수절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세력과 경제적 뒷받침이 되어야 가능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홀아비들에게 밤중에 업혀가도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젊은 과부가 있다는 소문만 나면 장가를 가고 싶어하는 홀아비들이 밤중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업어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¹²⁾ 언제 신변에 위험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생계 유지조차 어려웠던 것이 과부들의 삶이었다. 이와 같이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라기 보다는 이미 누군가가 사용하나 버린 소유주가 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과부였다.

10) 『조선에수교장로회사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40쪽.

11)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89, 155쪽.

12) 전도부인으로서 활동했던 김세지는 과부의 생활에 대해 “그런 그 때만 하여도 옛날이라 지금갓치 법률이나 경찰이 많지 못하였으므로 청춘과부는 일허바리는 일이 혼하여 과부로 살기가 꼭 위험하였다. 특히 아담이 하나도 업지 과부된 젊은 여자는 보호해야 하는 법률이 별로히 없었는고로 인가나 변죽하고 그 사는 시골에서 상당히 세력이나 잇는 집안이면 모르기니와 그리치안으면 홀아비의게 일허버리기가 매우 쉬웠었다. 그 때는 이대 젊은 과부가 잇다는 소문만 나면 장가들니하는 홀아비가 사람을 만히 다리고 밤중에 아모도 모르게와서 업어다가 살이도 아모 상관이업고 또 이자가 아모리 살기가 신타하드라도 잊지할수업지 업히가서사는 일이 종종잇었다”고 말했다(Mrs. W. A. Noble, 『승리의 생활』, 조선기독교장문사, 1927, 36쪽).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위와 같은 취급밖에 받지 못했던 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호적으로 대하였다.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야고보서 1:27), 여호와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잠언 15:25),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불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시편 146:9),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시편 68:5),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찌니라(신명기 27:19)”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그동안 주인없는 물건처럼 취급받던 과부라는 위치에 있던 조신성은 기독교를 통해 자신이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귀중한 존재로 여겼으며, 자신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자각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서 나아가 민족과 여성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로는 평북 의주라는 지리적 환경을 들 수 있다. 의주가 속해 있던 관서지방인들은 조선조 후기에 들어서면서 견제가 더욱 심해져 중앙으로 진출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1624년 평안도민들이 일으킨 이괄의 난 이후 서북인에 대한 견제는 더욱 심해져 심지어 숙종 때는 평안도인들에게 정거령까지 내려 과거조차 볼 수 없었다. 유일한 중앙 진출의 길이었던 과거까지 봉쇄 당한 서북인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런 불만은 민란의 형태로 종종 폭발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홍경래의 난이었다. 따라서 서북인들로서는 정치적 진출이 아닌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조선조 후기부터 의주지방에는 청과의 무역을 통해 성장한 상인 중심의 자립적 중산층이 대두하였다.¹³⁾

의주는 국경무역의 관문이었으므로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한문과 만주어에 능통했으며,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한 요구

1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앞의 책, 143쪽.

가 강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의주지방에 한국 최초의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발생한 것은 이러한 지리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지리적 환경이 조신성에게 보다 더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는 민족운동가들과 교유였다. 조신성이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대표적인 인물은 안창호였으며, 그 외 서북지방 출신의 민족운동가들이었다. 1934년 『신가정』의 한 기자가 조신성에게 “여성운동을 시작하실 때에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하자 “내가 하숙하고 있을 때 가치 등을 대고 일하던 이가 도산 안창호 그리고 그밖에 많은 남자 동지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 때 부인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조직했었답니다”¹⁴⁾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속에 나오는 많은 남자 동지들은 구한말 국권회복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07년 4월 20일경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로서 조직된 신민회의 회원은 대부분 평안남북도 지역으로 집약되었는데, 그 구성원들은 주로 대성, 송신, 일신, 양실학교 등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근대적인 상공업 종사자들이었다.¹⁵⁾ 이러한 관계에서 조신성은 신민회 구성원중에서 가장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안남북도 출신 인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교류하면서 민족운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조신성은 민족운동가, 여성운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2) 민족운동의 전개

조신성이 전개했던 민족운동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기는 구한말에서 1910년대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주로 교육사업과 자신을 위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24세 되던 해에 서울로 와서 이화학당과 상동 소재 교원양성소를 졸업 후 상동 소재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 후 28세 되던 해부터 6년 동안 이화학당 사감으로 재직하였다. 재직 기간 동안 주일학교 반

14) C기자, 「조신성여사와의 일문일답기」, 『신가정』 1934년 11월호, 111쪽.

1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앞의 책, 297쪽.

장, 청년회 회장 그리고 종로 상품 진열관 고문 등을 지냈다. 그는 이와 동시에 창덕궁 방을 한 칸 빌려 이준과 함께 한국 최초의 조선부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¹⁶⁾

이러한 활동을 하는 동안 조신성은 자신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 유학을 결심하였다. 그의 나이 34세였다. 그는 일본 神田 성경학교를 졸업한 후 横浜 성경여학교 고등과를 다니다 신경쇠약으로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귀국하였다. 귀국 후에도 계속 그는 교육사업에 매진하였다. 귀국하자마자 부산 규범여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가 1910년 9월 28일 사직하고 서울로 와서 양메례의 부탁으로 평양 진명여학교 교장직을 맡아서 활동하였다.¹⁷⁾

진명여학교는 도산 안창호의 주도에 의해 설립된 학교였다. 도산은 여성교육의 필요를 절감하고 진명여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평양 명륜당에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 도산은 평양의 기생들과 기생학교 학생들을 대동강 놀이배에 태우고 애국의식을 일깨우는 연설을 몇 차례에 걸쳐 행하였다. 이에 감동받은 기생 중에서 10여명이 학교에 입학하여 학생이 되었다.¹⁸⁾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진명여학교는 점차 번창했으나 국권을 상실함으로써 도산의 해외망명과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던 평양부인회 회원들의 탈퇴로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신성이 진명여학교를 책임지게 되었던 것이다. 『매일신보』에서는 1911년 4월부터 조신성이 학생모집에 주야로 힘 쓴 결과 진명여학교 설립 6년만에 학생이 백여명에 달했다면서 그를 높이 평가하였다.¹⁹⁾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무렵 조신성은 비밀사령을 받고 북경으로 떠났다.²⁰⁾ 당시 북경에는 수 십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으며, 1917년에는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고려청년회가 조직되었다.

16) C기자, 앞의 글, 111쪽.

17) 일기자, 「조신성여사 약전」, 『신가정』 1934년 4월호, 88~89쪽.

18) 주요한 편저, 『도산 안창호』, 삼중당, 1971, 84쪽; 박용옥, 앞의 책, 40쪽에서 재인용.

19) 『매일신보』, 1912. 2. 18.

20) 일기자, 앞의 글, 89쪽.

이러한 분위기하에서 장자일이라는 인물은 1918년 말부터 1919년 초 일제로부터 민족운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감시를 받았다.²¹⁾ 북경에서 조신성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기독교 민족주의자들과 연계를 맺고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조신성은 주로 교육사업에 매진하였으며, 북경에서 잠시 민족운동에 가담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시기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이다. 이 시기의 주요 활동으로는 무장투쟁, 교육운동, 여성단체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조신성은 북경을 다녀 온 후 1919년 11월 만주 관진현에서 조직된 대한독립청년단연합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맹산독립단을 조직하여 활동했다.

그는 1920년 11월 18일 대한독립청년단연합회 평안남도 총무 김봉규의 한 명과 함께 맹산군 지탄면 안국정의 집에 가서 맹산면장 방입주 외 2명을 붙들고 “조선이 독립국이 될 수 있다는 말과 조선 민족의 자는 독립운동을 어디까지 하여야 한다는 말과 독립의 목적을 달하도록 하라는 권유”를 하고 다음 날 영원을 향해 가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다.²²⁾ 순간의 기지로 김봉규의 1명은 달아나게 하고 조신성 혼자 체포되어 평양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조신성의 주도로 조직된 맹산독립단은 『동아일보』 1921년 10월 21일자 기사에 의하면 중국 관진현의 조맹선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독립청년단연합회의 하부 조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조맹선은 북벌주의를 표방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대한독립단의 도총재부산하 사무기구인 총단의 총단장이었다. 이 단체는 만주 柳河縣 三源浦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였다.²³⁾ 조신성은 기독교인이었으므로 오히려 대한청년단연합회와 더 밀접한 관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렇

21) 支那特命全權公使, 「北京在留朝鮮人の行動に關する件」, 1919. 3. 5; 조규태, 「1920년대 북경지역 기독교인의 민족운동 - 북경고리기독교청년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1월 월례발표회 발표문, 3쪽에서 재인용.

22) 『동아일보』, 1921. 10. 9.

2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5권, 독립유공자사익기금운용위원회, 1973, 246쪽.

게 소개가 된 것은 1920년 7월 대한청년단연합회, 한족회 등과 함께 임시정부 산하의 광복군총영으로 개편되어 활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튼 조신성은 만주지역 독립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활동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1934년 『신가정』의 한 기자가 “직접 운동을 실행하시는 동안에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일을 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가슴에다 육혈포, 탄환, 다이나마이트를 품고 시시로 변장을 하여 가며 깊은 산 속을 며칠씩 헤메고 생식을 하다가면서 고생을 하던 때 또는 주막에서 순검에게 잡혀 가지고는 격투 하던 때 그리고 오도가도 못하고 끼니를 굶어가며 산속에서 며칠 썩 숨어 있던 때 …”²⁴⁾라고 대답했다.

조신성의 독립단은 항일무장투쟁과 군자금 모집이 주요한 활동 내용이었다. 구성원은 19여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신성과 함께 체포된 단원은 19명이었다. 그의 항일무장투쟁은 그가 체포됨으로써 끝이 났으며 출옥 후 다시 교육운동에 매진하였다. 그는 평원군 한천으로 가서 사숙을 세워 어린이들을 가르쳤으며, 대동군 대평에서 취명학교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²⁵⁾

조신성이 여성단체운동을 시작한 것은 근우회가 조직되면서였다. 1927년 5월 사회주의여성운동세력과 민족주의운동세력은 민족과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서 근우회를 조직하였다.

조신성은 처음부터 근우회본부에서 활동하지 않았으며, 평양지회에서 활동하였다. 근우회 평양지회는 조신성을 비롯한 박현숙, 박승일, 김선경, 김경옥, 백덕수 등에 의해 1928년 1월 30일에 조직되었다. 평양지회 회원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으며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었다.²⁶⁾ 이와 같이 근우회 본부 및 다른 지역 지회들은 사회주의운동세력과 민족주의운동세력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반면 평양지회는 민족주의세력들만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박용옥은 “평양 지역은 서울 지역과 비견될만큼 근대여성운동이 일찍부터 추진된 곳이며, 여성들의 항일민족운동이 가장 조직적이고

24) C기자, 「조신성여사와의 一問一答記」, 『신가정』 1934년 11월호, 112쪽.

25) 『동아일보』, 1932. 11. 2.

26) 박용옥, 앞의 책, 396쪽.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곳이다”라고 주장했다.²⁷⁾ 곧 평양지역은 조만식이 조신성의 회갑연 축하 인사에서 “우리 평양은 누가 말하기를 여자 왕국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말대로 가만이 일꾼을 헤아리며 대부분이 여자인 것을 알겠고 …”²⁸⁾라며 우스개소리를 할 정도로 여성운동 및 항일민족운동에 앞장섰던 지역이었다. 기왕의 연구에서 근우회 해체의 원인을 회원 내부간의 갈등으로 보고 있으나 이보다는 일제의 탄압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신성이 이끄는 근우회 평양지회에서는 근우회 회관의 설립, 여자 실업장려회 조직으로 여성들에게 경제의식 진작 및 실업여성의 직업 확보를 위한 실행사업으로 베리아쓰공장 설립을 기획하는 등 추상적인 여성운동이 아닌 현실적인 여성운동을 기획하고 실천하였다.²⁹⁾

근우회 중앙본부에서는 1928년 하반기에 사회주의여성세력과 민족주의여성세력간에 갈등이 노정되어 민족주의여성세력들이 대거 탈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우회본부에는 명망 있던 조신성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이를 극복하려 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이는 조신성이 1936년 『동아일보』와의 대담 기사 중 “여성 단합의 기운이 최근 침체상태이며, 근우회가 법적 해소도 없이 자연히 침체하는 바람에 560명의 회원 연락이 끊겼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상의 일일 뿐 그 정신만은 더욱 굳어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명복을 달리 하어서라도 여성들의 결합체가 새로 조직되려고 최근 신기운이 농후하니, 곧 출현한 것으로 믿는다”³⁰⁾고 한 내용을 통해 위의 사실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1930년대 이후이다. 이 시기에는 교육사업 등에 매진하였다. 근우회 중앙본부 해체 후에 조신성은 평양 지회를 중심으로 계속 활동을 해 나갔다. 주로 근우회 야학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취명학교와 교육원을 운영하였다. 취명학교는 1920년대부터 계속 한 사업

27) 박용옥, 앞의 책, 392쪽.

28) 최영수, 「조신성 이사 회갑축하회에 참석하고 나서」, 『신가정』 1934년 11월호, 107쪽.

29) 박용옥, 앞의 책, 397~398쪽.

30) 『동아일보』, 1936. 6. 3.; 신영숙, 앞의 논문, 142쪽 세인용.

이지만 교육원은 1932년 6월 25일 설립한 학교이다. 이 학교는 무산아동을 위해 설립하였는데, 황해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4백여원을 확보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보통학교 4년까지 공부를 시킨 후에 농업 보습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서 아동의 손으로 학비와 교육원 경비에 충당하려 하였다. 1930년대 중후반까지 계속 이 사업을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신성은 일제강점기 개인적인 삶보다는 민족과 여성을 위한 공적인 삶을 중요시했다. 오기영은 1934년 『신가정』에서 “그는 오로지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아마 그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날는지 모르지마는 그는 숨이 넘는 그 마즈막까지 조선을 생각할 뿐, 그가 두고 가는 친척, 자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는 죽기까지 용서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알면서 조선을 걱정하지 아니하는 조선사람, 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에게 있어서 모두가 죽기까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³¹⁾라고 평했다. 이러한 인물이었던 조신성은 1945년 해방이 되자 3개월만에 월남을 하게 된다. 당시 그는 7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였다.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한을 선택하였다. 어떤 동기 혹은 배경하에 조신성은 월남을 하게 되었던 것일까?

3. 해방 후 남한에서 정치적 역할

1) 월남 동기

1925년 맹산독립단 사건으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후 조신성이 계속 머물렀던 곳은 평양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 그는 여성운동 및 민족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그는 중앙에서도 인정을 받아 1930년 근우회 중앙본부의 집행위원장으로까지 선임되었던 것이다. 근우회 중앙본부가 1931년 해체된 이후에도 조신성이 주도하던 근우회 평양지회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현실적인 여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일제말기 그가 회갑연을 맞이하였을 때 사회적

31) 오기영, 앞의 글, 94쪽.

인 하나의 사건이 될 정도로 그의 광적인 삶은 인성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1945년 11월 27일 밤을 틈타서 월남을 강행하였다. 조신성이 밤을 틈타서 월남을 한 것은 1945년 8월 27일부터 소련군사령부에 의해 남한과 북한간에 인적, 물적 교류가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을 평남민보사가 1966년에 발행한 『고당 조만식』에 다음과 같이 진하고 있다.³²⁾

첫날에 도착한 소련군 약 三十명은 평원선(平元線)을 타고 와서 평양역에 잠시 하차했다가 경의선(京義線)을 바꾸어 타고三八선 접점의 금교(金郊)로 남하해 갔다. 그 날 평양역에서 선을 보였던 소련군은 대부분이 二十세 안팎의 키가 작은 몽고(蒙古) 출신으로 보이는 애기병정들이었다. 남루한 군복에다가 종에 가죽끈을 달아서 어깨에 축 늘어지게 맨 꼴이 일본군만 보았던 시민의 눈에는 채워로나 기품으로나 빈약한 인상을 주었다. 그들이 금교로 급행한 이유를 평양시민은 짐작조차 못했지만, 그 뒤에三八선을 빨리 막으라는 명령을 받고 온 선발대였던 것을 알았다.(중략) 그것도 공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까지 남북간을 자유로 통행하던三八선 일대를 소련군이 갑자기 나타나서 기차 자동차를 비롯한 일체의 인원 왕래를 금지해 버렸던 것이다.³³⁾

이러한 상황에서 조신성은 그를 따르던 광선부³⁴⁾가 “공산당도 조선 동포”라며 이를 만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신성은 “공산당은 내 동포가 아니야 공산당이 무슨 사람이야. 한 사람이라도 제 정신 가진 놈

32) 1945년 8월 24일 입북한 소련군은 동년 동월 27일부터 경의선, 경원선 철도 운행을 중지시키고 38도선에 인접한 금천, 신파, 인천, 평강 그리고 양양 등지에 경비부대를 배치하여 남한과 북한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를 완전 통제하였다고 한다. 김광운 a, 『북한정치사연구 1』, 선인, 2003, 54쪽.

33) 『古堂 史晩植』, 平南民報社・古堂傳 平壤品川行會, 1966, 178~179쪽.

34) 최은희의 『조국을 찾기까지』 하권에는 월남을 만류한 사람이 조신성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교인이 된 광선부를 2004년 9월에 만나 면담을 한 결과 제자가 아니고 본인이라고 한. 광선부의 부모는 독립운동가 광치문과 박치은이다. 조신성은 박치은과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지로 지냈으며 광선부는 조신성을 큰 이끼니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이 남아 있어야 내 동포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월남하였다.³⁵⁾ 일제강점기 민족과 여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실천했던 조신성은 자신의 활동 거점이었던 평양을 뒤로하고 월남을 강행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박용욱은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그가 공산당을 동포로 보지 않았던 것은 근우회운동의 경험과 민족유일당 운동의 와해를 직접 경험한데서 나온 의지였다”³⁶⁾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근우회의 해체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었다고 조신성은 설명했다. 곧 일제의 탄압정책에 의해 근우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신성의 월남동기를 근우회 경험에서 찾기보다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 그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곧 해방 이후 북한 지도자들의 모습과 북한 정권 수립 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1945년 월남인의 숫자에 대해 외무부에서는 18만명, 미군정보고서에는 약 26만명으로 집계하고 있다.³⁷⁾ 대체적으로 해방 직후 약 100일이 조금 넘는 짧은 기간 동안 약 25만명의 인구가 북한지역에서 월남하였다고 한다. 이들 월남인들의 월남 동기에 대해 1980년대 이전까지는 “공산당의 만행을 피해서”, “공산주의에 반대해서”로 인식하였다.³⁸⁾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인식이 매우 편협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연구가 나왔다. 즉 이러한 인식이 고정된 것은 월남인을 대변해 온 사람들이 정치, 사상적, 종교적 동기로 월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⁹⁾

그러면서 북한지역에서 해방 시기 일찍 월남한 사람들 층에는 친일파나 부일협력자층의 다수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⁴⁰⁾ 그리고 해방

35) 최은희, 『조국을 찾기까지』 하권, 탐구당, 1973, 8쪽.

36) 박용욱, 앞의 책, 56쪽.

37) 이용기, 『이산가족 연구 어디까지 왔나』, 『역사비평』 가을호, 1998, 261쪽;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 밀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42쪽 재인용.

38) 이용기, 같은 책, 43쪽.

39) 이용기, 같은 책, 50쪽.

40) 이용기, 같은 책, 53쪽.

시기 종교적 탄압에 의한 월남인 역시 일제 치하의 친일행위나 반민족적인 사상과 행위, 사대주의 종교단체의 소유재산에 대한 재분배 정책에 대한 반기, 경제난 등의 동기와 복합되어 납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⁴¹⁾ 그 나옴으로 들고 있는 것이 소련군의 만행이었던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⁴²⁾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조신성이 월남한 동기는 반공 사상이 아닌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김일성의 정권 장악으로 인한 평양 민족주의 세력의 배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빨치산 출신들, 소련군과 함께 1945년 9월 19일 입북하였다.⁴³⁾ 김일성이 북한에 도착했을 때는 조만식에 의해 평남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조만식은 일본인 지사로부터 전권을 이양 받아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박헌영의 정치노선을 따르던 현준혁도 조만식을 인정하고 있었다.⁴⁴⁾ 북한 지역은 평양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세력보다는 민족주의세력이 더 강하였다. 평양은 일제시기부터 민족자본 중심의 활발한 기업 활동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린 기독교로 인해 민족주의 세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⁴⁵⁾ 그리고 현준혁을 중심으로 한 북한 사회주의세력은 박헌영 주도의 서울 중심 세력을 따르고 있는 형편이었다.⁴⁶⁾

따라서 김일성의 국내 지지 기반은 약하였다. 소련군의 힘만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없었다. 이에 소련군사령부는 한국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조선에 소비에트질서를 설정하거나 또는 조선지역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았다” “이제라는 모른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댔다”라는 내용의 「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치스차코프사령관의 성명», 「붉은 군대는 무슨 목적으로 조선에 왔는가」, 그리고 항일민주정당의 독립과 친일세력 제거 등

41) 이용기, 같은 책, 56~57쪽.

42) 이용기, 같은 책, 194쪽.

43)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신인, 2005, 63쪽.

44) 김학준,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과정」,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9, 74~78쪽.

45) 平南民報社・古堂傳 平壤誌刊行會, 앞의 책, 175쪽.

46) 이 당시만 해도 행정 중심이 서울이었으므로 평양의 사회주의 세력은 당연히 서울 중심의 사회주의세력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을 명령한 「북조선 주둔군 소련 25군 사령관 명령서」 등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⁴⁷⁾ 그러나 실제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기본 조건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반김일성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였다. 소련군사령부는 현존혁식의 부르조아 민주혁명 노선을 비판하고 친일세력을 제외한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기본조건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⁸⁾

이에 소련군사령부는 조만식이 주도하는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인민정치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45년 10월 10일에는 5도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혁명정당’을 발족, 10월 10일에는 ‘조선공산당 서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조직하고 10월 14일 ‘평양시 군중대회’를 통해 김일성을 등장시켰다. 소련군사령부는 이 때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으로 소개하였다.⁴⁹⁾

조만식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민주당을 11월 3일 창건하였다. 그러나 소련군사령부의 지지를 받고 있던 김일성 및 그 지지자들은 이승만, 김구와 함께 조만식을 조선민족의 반역자로 몰았다. 조만식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이 자진해서 지원병 지원서를 쓴 것에 대해 그가 매우 기뻐하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1943년 『매일신보』에 실린 「학도에게 바란다」라는 기사를 실은 것 때문에 친일반역자라고 혹평하였다.⁵⁰⁾

북한지역의 정권 수립이 소련군사령부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의 주도로 되어 가는 것을 본 조신성은 더 이상 이곳에서 자신의 뜻을 펼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련군사령부는 북한 지역에서 자신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는데, 조만식은 전혀 아니었다. 그는 일찍부터 기독교도 중심의 민족운동 중요거점이었

47) 김학준, 앞의 책, 26쪽.

48) Scalapino and Lee, *Communism in Korea 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322쪽; 「朝鮮解放一年史」, 1948, 118쪽; 같은 책, 77쪽에서 재인용.

49) 같은 책, 77~78쪽.

50) 조선민주당 당수 최용건, 「假愛國者, 民族叛逆者 曹晩植의 정체를 보라」, 「팻쇼 반민주분자의 정체」, 러시아 사회주의정당사문서보관소, 폰드 No.495, 오빠시 No.135, 델로No.211.

던 평양지역의 민족운동 지도자였다. 이러한 그가 소련의 정책에 순순히 따르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조만식의 제거는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와 조신성은 사상적으로도 통할 뿐 아니라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 조신성 또한 평양지역 여성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1934년 그의 회갑연에서 조만식은 “우리 평양은 누가 믿하기를 여자 왕국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말대로 가만히 일꾼을 헤아리게 대부분이 여자인 것을 알겠고 이것을 생각하매 남자 된 나로서는 대단히 불유쾌하기도 하며 혹 일종의 야심까지가 생기는데 또 이렇게 선생의 회갑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고 보니 더욱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⁵¹⁾라는 우스개 소리로 축하 인사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그런데 해방 이후 평양뿐 아니라 북한지역에서 가장 빙방 있는 인물이었던 조만식에 대한 압박이 점차 강도를 더해가고 민족주의 세력들은 대부분 원남을 하였다. 이에 조신성도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물론 당시 그는 70세가 넘는 고령이었기 때문에 직접 전면에서 나서서 활동하기는 어려웠으나 평양에서 여성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었다. 조신성은 기독교인이었지만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다. 종교, 정치적인 이념에서도 열려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여성 사회주의운동가들이 그를 군우회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었고 원남 이후 불교 사찰의 암자에도 기거하면서 한 때를 보낼 수 있었다.⁵²⁾ 이러한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던 조신성이 원남을 한 것은 김일성의 성권 장악으로 인한 평양 민족주의 세력의 배제로 더 이상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있었다.

두 번째는 여성운동단체가 김일성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조직되면서 조신성을 비롯한 민족주의계열 여성들의 소외였다. 평양지역의 민족운동과 여성운동을 담당했던 세력 대신에 소련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인물들이 반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인물은 박성애였다. 그는 1901년 함경도에서 출생하

51) 최영수, 앞의 글, 107쪽.

52) 씨실부, 앞의 문단.

였으며, 학생시절부터 혁명운동에 가담하였다. 1919년경부터 평양 고무공장, 신발공장의 여공을 지냈으며 1925년부터 공장에서 지하조직과 노동운동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몇 회에 걸쳐 투옥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평양형무소에서 출옥했으며, 1945년 9월 조선공산당 평안남도위원, 1945년 11월 북조선민주여성총동맹위원장,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중앙위원, 1946년 8월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등을 지내면서 북한 지역 여성 인물 중에서 가장 명망있는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⁵³⁾ 그가 이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은 소련의 힘이 컸다. 박정애는 1920년대 중반경 코민테른의 임명을 받고 한국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⁴⁾

1945년 해방 직후 북한 각지에서는 부녀동맹, 해방부녀회, 여성동맹 등 자발적인 여성운동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조신성은 여성동맹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⁵⁵⁾ 이들 단체는 여성들의 봉건적 생활양식 청산, 축첩제 폐지 등을 주요 활동으로 삼았다.⁵⁶⁾ 그 후 김일성은 1945년 10월 15일 평양시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현국제 국내정세와 녀성들의 과업’이라는 강연을 통해 대중적인 여성조직의 결성을 주장하였다. 이후 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 민주여성동맹’이 창립되었다.⁵⁷⁾ 임원들은 모두 사회주의계열의 여성들이었다. 박정애를 비롯 신진순, 김정숙, 김철호, 김성옥, 김명숙, 안정숙, 김명화, 전희등이 이 단체를 주도하였다.⁵⁸⁾ 위원장으로 박정애가 선임되었다.

53) 『북조선인명록』, 일본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 1967, 234쪽.

54) 랑코프, 「북한정권의 형성과정과 소련과의 역할」, 『수춘 박영석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하)』, 탐구당, 1992, 546쪽. 소련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사람들을 분류하면 첫째 소련군동전순군 88독립보병여단 소속 군인, 둘째 일제시기 한국에 파견된 공작원, 셋째 소련정규군, 넷째 민간인으로 당, 정권기관, 언론기관, 교육기관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김광운a, 앞의 책, 75쪽). 이중에서 박정애는 일제시기 한국에 파견된 공작원에 속한다.

55) 『동아일보』, 1946. 5. 6.

56) 김광운b, 「해방 직후 북한 여성의 상황과 정치 참여」, 『제47회 전국 역사학대회』, 2004, 125쪽.

57)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1, 77쪽.

58) 김광운b, 앞의 책, 125~126쪽.

박정에는 1946년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북조선 노동당 창립대회에서 “김일성 동지는 북조선 인민의 지도자 뿐만 아니라 전 조선인민의 지도자입니다”라고 한 정도로 김일성 중심의 정권 수립에 적극적으로 찬성한 인물이다.⁵⁹⁾

그리고 구성원들 중에 조신성을 비롯한 민족주의계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평양 지역은 한국 근대 여성사에서 서울과 비견할 정도의 근대여성운동과 항일민족운동이 가장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곳이다. 그 주도자들은 민족주의계열 여성들이었다. 3.1운동 이전부터 송죽회를 중심으로 비밀결사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후 3.1운동도 이 단체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또한 3.1운동 직후에는 조직적인 항일여성운동단체를 결성하여 임시정부와 긴밀한 관계하에서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이후에도 여성교육운동, 근우회 운동 등으로 평양의 여성운동은 민족주의 여성운동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근우회중앙본부가 인재의 전시정책에 의해 해체가 되었을 때도 근우회 평양지회만이 회관을 소유하면서 여성실업과 야학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평양 여성운동의 중심에는 조신성이 있었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역사를 가졌던 평양 지역이었는데, 김일성이 정권을 점차 장악해감에 따라 이 지역의 조신성을 비롯한 주요 여성인물들은 여성운동단체에서 소외되어갔다. 평양지역에서 명망이 있던 사회주의계열인 현준혁도 조반석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되었다. 여성운동은 고사하고 신변의 위협마저 느낀 평양 시의 여성운동 주도 인물들은 원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조신성과 함께 근우회 운동을 주도했던 박헌숙도 원남을 했다. 그도 여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여성동맹, 남자는 민청의 산하에서 철저한 공산적인 훈련을 받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원하던 여성운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고 했다.⁶⁰⁾

1946년 5월 ‘북조선 민주여성동맹’은 ‘우리는 민주주의적 여성과 대동 단결하여 김일성 장권이 발표한 20개조 정강을 그 기초로 한 조선

59) 서동만, 앞의 책, 177쪽.

60) 박관일, 『심운대로 : 칭해 박헌숙선생의 건이운 길』, 칭해 박헌숙 선생이 걸어온 길 출판위원회, 294쪽.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위해 총역량을 집중함’, ‘녀성에게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정강을 지지하며 이 영예를 전 조선녀성들에게 드리기 위하여 분투함’ 등 7개항의 강령을 채택하였는데, 이 단체의 목적이 여성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것 보다는 정치적인 총동원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¹⁾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1946년 11월 도, 시, 군 인민위원 선거, 1947년 면, 리 인민위원 선거, 경제적으로는 모내기와 제초사업에, 공장생산, 제방공사, 관개공사, 개수공사, 춘경파종, 식수사업 등 각 공장, 광산, 농촌 등으로 총동원되었다.⁶²⁾

북한의 정권 수립과정을 지켜보던 조신성은 더 이상 자신이 활동할 공간은 없어졌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1946년 5월 6일자 『동아일보』가 조신성에 대해 “칠십 노구의 노파로서 일즉이 삼팔 이북 평양에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부르짖으며 정열있는 여성운동에 여생을 바쳐나 오든 전평양애국부인회와 여성동맹 위원장 조신성(75) 여사는 모든 것이 마음에 합치안타 하여 홀연이 위원장의 자리에서 몸을 거두어 얼마남지 않은 여생을 양심적으로 살겠다고 삼팔선을 넘어 양심적으로 살겠다고 삼팔선을 넘어 서울에 왔다”고 소개한 다음의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곳 평양은 별하나 모든 것이 일같이 안타고 단순히 말하고 싶다. 정치가는 정치를 잘해야 될 것이 정치를 앎고 누구 집에 물건이 있나 ... 어떠한 하여야 빠져 오나 ... 그런데에만 눈이 팔리어 있고 청년은 청년대로 적기를 휘두르며 날뛰고 있다.

나라를 생각하여 성금을 하고자 하는 성의 잇는 뜻도 잇스나 그 현금은 그네들 소위 정치가의 술값이나 광고선전비를 도울 뿐이다.⁶³⁾

이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조신성의 월남 동기는 김일성의 정

61)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1, 78쪽.

62) 김광운a, 앞의 책, 205~206쪽.

63) 『동아일보』, 1946. 5. 6.

권 장악으로 인한 평양 민족주의 세력의 배제와 여성운동단체가 김일성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조직되면서 조신성을 비롯한 우익 여성들의 소외에 있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조직된 지 십 여일이 지난 11월 27일 밤에 조신성은 원남을 단행했던 것이다.

2) 남한에서 정치적 역할

조신성이 원남했을 때 이미 남한지역은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 여성들이 각각 독자적인 여성운동단체를 조직한 상황이었다. 남한지역에서는 해방되자마자 즉각 인세강집기 여성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건국부녀동맹’이 결성되었다. 결성 전 날인 8월 16일 오후 1시부터 경성 중앙여자상과학교에서 건국부녀동맹 결성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날 황신디, 박순전, 허하백, 박승호, 노천명 등이 전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⁶⁴⁾

건국부녀동맹은 유영준을 위원장, 박순전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총무부, 재무부 등 9개 부서를 두고 다음과 같이 16명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었다.⁶⁵⁾

집행위원: 황신디, 허하백, 조원숙, 서석전, 이각경, 황애덕, 박봉애, 전잉애, 정양자, 신진순, 남소지, 임영신, 유각경, 이규영, 박승호, 김선

총무부장: 황신디

재무부장: 서석전

조직부장: 허하백

지방부장: 조원숙

문교부장: 이각경

건설부장: 임봉량

선전부장: 박봉애

조사부장: 전잉애

후생부장: 정영자

64) 송남현, 『해방 3년사 I: 1945-1948』, 까치, 1985, 214쪽.

65) 『매일신보』, 1945. 9. 15.

이들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사회주의계열 여성들, 친일행위를 한 여성들, 민족주의계열 여성들 등 이념, 일제강점기 활동 내용 등에 상관없이 모두 망라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이 단체를 사회주의계열 여성들이 주도하게 되자 민족주의계열 및 친일행위를 했던 여성들은 탈퇴를 한 후 독자적인 여성운동단체를 조직하였다.

임영신은 같은 해 8월 25일 여자국민당을 창설하기로 한 후 9월 3일 중앙예배당에서 결당식을 하였다. 여자국민당의 임원은 위원장 임영신, 부위원장 김선, 이은혜, 총무 박현숙, 이홍술, 정치부장 이양진, 경제부장 이경진, 교육부장 박은혜, 사회부장 이아주, 종교부장 최순철, 문화부장 서영채, 농민부장 최봉선, 위생부장 길정희, 선전부장 박현숙, 고문 이승만 부인 등으로 구성하였다.⁶⁶⁾

연이어 9월 4일에는 인사정 안산부인과 병원내에서 유각경의 주도로 ‘한국애국부인회’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9월 10일 결성총회가 개최되었다. 임원진은 위원장 유각경, 부위원장 양한라, 총무부장 박원경, 재무부장 이계영, 문화부장 박마리아, 지방부장 이효덕, 선전부장 최이권, 평의원 김미리사, 신알버트, 양매륜, 홍애덕, 이민천 등으로 구성되었다.⁶⁷⁾

황신덕과 박순천은 같은 해 12월 8일 『동아일보』에 “건국부녀동맹의 회원들 대부분이 순수한 여성운동보다는 좌익계열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꼭두각시였기 때문에 탈퇴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탈퇴하였다. 황신덕과 박순천은 일본에서 같은 유학생활동을 하면서 서로 친밀한 관계였으며, 1940년 한국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함께 경성가정의숙을 창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인물 모두 1940년대에 부일협력을 한 탓에⁶⁸⁾ 해방 이후 여성을 위한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들은 건국부녀동맹을 탈퇴한 후 1946년 1월 9일 ‘독립촉성중앙부인단’을 결성하였다.⁶⁹⁾ 이 단체의 결성 목적은 반탁운동을 지원, 지지

66) 『매일신보』, 1945. 9. 14.

67) 『매일신보』, 1945. 9. 10.

68) 임종국, 『실록 친일파』, 반민족문제연구소 엮음, 돌베개, 1996, 220~221쪽.

69) 『서울신문』, 1946. 1. 13.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1946년 4월 5일 '한국애국부인회'와 '독립촉성중앙부인단'은 '독립촉성애국부인회'로 통합하였다.

해방직전 여성의 권리 확보 및 양성평등을 위한 운동에 전력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이념, 활동 내용 등을 불문하고 여성활동가들은 단합하여 '전국부녀동맹'을 결성하였으나 조선성이 원남했을 때는 이미 정치적으로 사회주의계열과 민족주의계열로 구분되어 있는 상태였다. 한편 사회주의계열 여성들은 1945년 12월 6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을 해체하고 전국적 규모의 여성 조직인 '전국부녀총동맹(이하 부총)'을 결성하였다. '부총'은 1945년 10월 15일 김인성의 연설을 계기로 조직된 '북조선민주여성동맹' 그리고 민족주의계열 여성들의 통합 움직임, 신탁통치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 및 조선공산당의 방치 등에 의해 결성되었다.

'부총'은 3대 강령을 채택하였는데 첫째 조선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완전 해방을 기함, 둘째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건설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가, 활동하기를 기함, 셋째 조선 여성의 국제적 제휴를 도모하고 세계 평화와 문화 향상에 노력함 등이었다.

이 강령은 '북조선민주여성동맹'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북조선민주여성동맹'이 김인성의 정권 장악을 위한 총동원세력으로 조직된 것임에 비해 '부총'은 조선공산당의 외곽단체 건설 계획하에 조직된 것이기는 하지만 남한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부총'은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임을 나타내기 위해 148개 단체 대표 458명이 모인 가운데 결성되었다. 1946년 진반기 지부 총수 150개, 맹원 80만명에 달하였다. 이는 기존의 여성단체들을 '부총'지부로 재편해 나갔던 것이다. '부총'의 지도부는 중앙집행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중앙집행위원 156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총무부, 조직부, 선진부, 문교부, 조사연락부, 재정부, 원호부 등으로 부가 편성되어 있었다.⁷⁰⁾ 중앙집행부 구성원들은 허화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제강점기

70) 송남진, 앞의 책, 309~312쪽.

사회주의계열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이었으며, 지방별 중앙집행위원은 그렇지 않았다.

이 때 조신성은 허정숙, 박정애, 현금란 등과 함께 ‘부총’의 평남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아마 조신성의 위치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선정했던 것으로 보인다.⁷¹⁾ 그러나 조신성은 허정숙에게 밀리고 있었다. ‘부총’ 결성대회에서 연안조선독립동맹의 천진분맹 책임자 및 조선의용군 직속 부대원으로 활동하다가 해방되자 화북, 만주, 서울까지 도보로 행군하여 도착한 김명시는 허정숙에 대해서 “과거 조선운동의 선봉이요, 근우회운동의 지도자이었던 허정숙은 해외로 망명한 후 우리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남경군관학교를 마치고 연안에 돌아가서 조선해방을 위하여 피투성이의 투쟁을 계속하다가 이번에 평양에서 돌아와 지금 씩씩하게 활동중이며...”⁷²⁾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신성은 1920년대 남성들을 조직하여 몸속에 무기류를 숨겨 다니면서 항일무장투쟁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가들 사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명망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조신성에 대한 소개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그의 존재는 남한 지역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그의 이름은 ‘부총’이 전국적인 여성단체임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이용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 후 ‘부총’은 점차 탄압을 받게 되어 그 세력이 약화됨으로써 1947년 2월 10일 제2회 전국대회에서 ‘남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개칭하였다.⁷³⁾ 그 후 1951년 박헌영 세력이 친미주의자로 몰려 김일성 세력에게 제거되자 ‘조선민주여성총동맹’으로 바뀌었다.⁷⁴⁾ 조신성은 언제까지 이 단체에서 활동했는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박순천과 황신덕의 주도로 결성된 대한부인회의 부총재를 담당하였다. 당시 그는 70세가 넘는 고령이었으므로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가 지났

71) 이승희, 『한국현대여성운동사』, 백산서당, 1994, 106~111쪽.

72) 김남식, 『남로당연구』 I, 돌베개, 1984, 101쪽.

73) 박일원, 『남로당의 조직과 전술』, 세계, 1984, 128쪽.

74)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역사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1971, 474~477쪽; 이승희, 앞의 책, 109쪽.

던 것이다. 자리는 명분에 불과했으며 박순천이 대주는 생활비로 그는 생계를 유지하였다.⁷⁵⁾

대한부인회는 한국독립추진에국부인회와 김성실이 주도하던 관계에국부인회의 통합으로 1948년 2월 28일에 탄생하였다. 대한부인회는 총선거를 앞두고 조직되었다.⁷⁶⁾ 이후 대한부인회는 단독정부 수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⁷⁷⁾

대한부인회가 조직된 것은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서울 덕수궁에서 열렸던 미·소 공동위원회는 남북통합 임시정부 수립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련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한국분세를 1947년 9월 유엔에 상정하였다. 같은 해 10월 17일 유엔총회에서 미국 딜레스 대표는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남과 북에서 유엔 감시 아래 선거를 실시하고 국회를 구성하며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한국의 정부 수립을 위해 1948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선거 감시를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자는 미국의 제의가 11월 14일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계기로 8개국 대표로 구성된 유엔한국위원단이 1948년 1월 8일 서울을 방문하였다.⁷⁸⁾

유엔한국위원단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북한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사령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입북 요구도 거부되었다. 그리자 유엔한국위원단은 남한에서만의 선거 실시를 유엔총회에 건의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선거날짜를 1948년 5월 10일로 결정하

75) 최은희, 앞의 책, 8쪽.

76) 같은 책, 8쪽.

77) 대한부인회는 1948년 2월에 발족되었으나 결성대회는 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것은 전국적인 조직으로까지 확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순천은 단독정부 수립 이후 대한부인회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듦을 위하여 행정력을 동원하여 여성의 대소민체는 전부 대한부인회에 집중하라는 발표문을 발표하게 하였다. 그 후 대한부인회는 1949년 2월 15일 부녀국의 부녀사업관에서 말기인대회를 가지고 2월 24일 기성되었다.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여성운동약사 1945~1963」, 한밤의 소리사, 1986, 398쪽; 성현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70~71쪽에서 재인용.

78) 김남식, 앞의 책, 303~305쪽.

였다.⁷⁹⁾ 이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이 빨랐던 박순천은 통일된 여성단체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다.

박순천은 1948년 1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대표로 선임된 메논을 덕수궁으로 초대한 후 이승만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메논은 유엔 총회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이승만은 국민회, 부인회, 청년회 등 각 단체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내용의 연판장을 가지고 있었다. 모운숙에 의해 이승만은 메논을 만나 이 연판장을 전달했다.⁸⁰⁾ 이러한 과정에서 박순천은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된 여성단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부인회 조직을 주도했던 박순천과 황신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제 말기 친일행위로 자신들의 이력에 흠집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민족운동가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조신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박순천은 조신성의 생계를 담당하면서까지 그를 부총재로 임명했다고 할 수 있다. 조신성은 평생 민족의 독립을 위해 삶을 살았으나 해방 후 정치적인 계산이 빨랐던 여성들에 의해 정치적인 이용만 당하고 말았다. 소련의 힘을 믿고 민족운동을 탄압하던 김일성 세력과 이들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뿐이었던 여성단체가 싫어 월남했으나 남한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한지역에서 정치적 야심이 많은 인물들이 원하는 조신성에 대한 가치는 일제강점기 화려한 민족운동가의 이력뿐이었다. 그가 실제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치적 계산이 없었던 그의 말년은 너무나 초라했다. 최은희는 “1.4 후퇴를 거쳐 그녀는 그해 여름 인천에서 항로로 부산 피난지에 있는 대한부인회 임시사무소로 박회장을 찾아왔다. 그 혁혁하던 여걸의 모습은 신병에 쪼들리어 서리맞은 풀포기 같았고, 초라한 행색은 그동안의 고생을 넉넉히 설명하여 주었다. 모시치마 밑의 광목 고쟁이가 오줌에 젖어서 쥐어짜게 되었던 것이다”⁸¹⁾

79) 김남식, 같은 책, 308쪽.

80) 박순천, 「내가 걸어온 야당가 4반세기」, 『다리』 1971년 10월호, 174~175쪽.

81) 최은희, 「애국여성 조신성 할머니」, 『여성계』 1956년 11월호, 193쪽.

라고 그의 말년을 설명하였다.

4. 결 론

지금까지의 본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신성이 민족운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혈혈단신이라는 것과 과부라는 조건, 기독교와의 만남, 평북 의주의 지리적 특수성, 민족운동가들과의 교유 등에 있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을 가진 그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지속적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평양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조신성은 해방 직후 월남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의 월남동기는 첫째 김일성 세력의 정권 장악에 의한 민족운동가들에 대한 탄압, 둘째 김일성 세력의 지지를 가장 우선시하는 여성단체의 활동 등에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는 자신의 출생지였던 평북 의주보다 더 거점으로 삼고 활동했던 평양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북한에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었던 그는 희망을 가지고 남한을 찾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냉정한 정치적인 현실이었다.

사회주의세력의 여성들이 주도하던 ‘부총’과 박순전이 주도하던 대한부인회에서는 그의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었다. 정치적 계산이 빨랐던 이들이 필요로 한 것은 조신성의 민족운동가 이력이었으며 대중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 그의 정치적인 역할은 인세강집기 대표적인 여성지도자로 활약했던 그의 이력을 빌려주는 것이외는 없었다.

그는 고아였고 과부였기 때문에 가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주체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는 민족운동가, 여성운동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오기영의 “내가 보기에 그는 자기의 정성, 자기의 진심을 누구에게 알릴 줄 모르는 병풍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고 자기 공로를 추세울 줄 모릅니다. 공을 위해서는 사를 돌보지 않고 사를 넣을 줄 모르는 지나친 결벽이 사람을 설복시킬 줄 알지마는 감압시키는 능을 피울 줄 모르기 때문에 이는 대양黨을 짓

고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옳으면서도 그를 위하여 충성을 드리는 사람이 적은 까닭인가 합니다. 그러나 아마 모르거니와 그는 영영 이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다른 술수를 부리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⁸²⁾의 평가와 같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신념대로 살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념을 다해 민족운동과 여성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지만 해방 후에는 오히려 이러한 배경이 그의 말년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남한을 찾았지만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위상을 가질 수 없었으며,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여성지도자라는 이력은 그를 더욱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조신성은 1952년 5월 6일 부산의 신망애 양로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80여생을 마감하였다. 그가 사망한 이후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사회에서 잊혀진 인물이 되어 갔다.

*** 주요어:** 조신성, 민족운동, 여성운동, 대한부인회, 전국부녀총동맹.

82) 오기영, 앞의 글, 94쪽.

참고 문헌

『동아일보』, 1921. 10. 9.

『동아일보』, 1932. 11. 2.

『동아일보』, 1936. 6. 3.

『동아일보』, 1946. 5. 6.

『매일신보』, 1912. 2. 18.

『매일신보』, 1945. 9. 10.

『매일신보』, 1945. 9. 14.

『매일신보』, 1945. 9. 15.

『서울신문』, 1946. 1. 13.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영인).

최영수, 「조신성 여사 회갑축하회에 참석하고 나서」, 『신가정』 1934년 11월호.

C기자, 「조신성여사와의 一問一答記」, 『신가정』 1934년 11월호.

오기영, 「조신성론」, 『신가정』 1934년 4월호.

일기자, 「조신성여사 약전」, 『신가정』 1934년 4월호.

조선민주당 당수 최용진, 「假愛國者, 民族叛逆者 曹晩植의 정체를 보라」, 『팻쇼 반민주분자의 정제』, 러시아 사회주의정당사문서보관소, фонд No.495, 오빠시 No.135, 델로No.211.

支那特命全權公使, 「北京在留朝鮮人の行動に關する件」, 1919년 3월 5일자.

Mrs. W. A. Noble, 『승리의 생활』, 조선기독교창문사, 1927.

Scalapino and Lee, *Communism in Korea 2*,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김광운, 「해방 직후 북한 여성의 상황과 정치 참여」, 『제47회 전국 역사학대회』, 2004.

———, 『북한정치사연구 I』, 선인, 2003.

김귀옥, 『원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 밀으로부터의 원남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남식, 『남로당연구』 I, 돌베개, 1984.

김학준,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과정」,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9.

탕코프, 「북한정권의 형성과정과 소련파의 역할」, 『수준 마영석화갑기념』

- 한국사학논총(하)』, 탐구당, 1992.
- 박순천, 『내가 걸어온 야당가 4반세기』, 『다리』 1971년 10월호.
- 박용옥, 『조신성의 민족운동과 의열활동』, 『한국여성항일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6.
- 박일원, 『남로당의 조직과 전술』, 세계, 1984.
- 박찬일, 『심은대로: 청해 박현숙선생의 걸어온 길』, 청해박현숙 선생이 걸어온 길 출판위원회, 1968.
-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역사사전 2』, 사회과학출판사, 1971.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선인, 2005.
- 송남현, 『해방 3년사 I: 1945-1948』, 까치, 1985.
- 신영숙, 『일제시기 여성운동가의 삶과 그 특성연구 — 조신성과 허정숙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제150집, 1996.
-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1.
- 이승희, 『한국현대여성운동사』, 백산서당, 1994.
- 이용기, 『이산가족 연구 어디까지 왔나』, 『역사비평』 가을호, 1998.
- 임종국지음·반민족문제연구소, 『실록친일파』, 돌베개, 1996.
- 정지영, 『조선 후기 과부의 또 다른 선택』, 『역사와 문화』 5, 2002.
- 정현주,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여성정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조규태, 『1920년대 북경지역 기독교인의 민족운동 — 북경고려기독교청년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5년 11월 월례발표회 발표문.
- 주요한 편저, 『도산 안창호』, 삼중당, 1971.
- 최은희, 『애국여성 조신성 할머니』, 『여성계』 1956년 11월호.
- , 『조국을 찾기까지』 하권, 탐구당, 1973.
-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89.
-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여성운동약사 1945-1963』, 한밤의 소리사, 1986.
- 『북조선인명록』, 일본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 1967.
- 『朝鮮解放一年史』, 1948.

Abstract

Jo Sin-seong's National Movement and Her Political Roles in Sou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Yoon, Jung-Ran

Jo Sin-seong, a national and female activist in the Japanese imperialist era, is now a person falling into oblivion in Korean society. We have investigated her life from the Japanese imperialist era to the times of the liberation in order to examine why she is such a person of oblivion in Korea. As a result, we have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reasons why Jo was able to be brought up as a national activist are her lone status as a widow, her encounter with Christianity, the geographical peculiarities of Euiju, Pyeongbuk, and her association with other national activists. With this background of her growth, she had constantly carried out national movement throughout the late Korean Empire and the times of Japanese colonial rule. The national movement she was involved includes educational movement, armed struggles against Japan, and activities with women organizations.

Though once she had a status of leader in Pyeongyang, she carried out crossing the border into South Korea. The motives of her crossing include (i) Kim Il-seong faction's suppression of the national activists by taking power, and (ii) the women organizations' activities giving priorities to support for Kim Il-seong fac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she was not able to fulfill activities any more in Pyeongyang, on which she had put greater importance than on her birthplace, Euiju, Pyeongbuk. However, there was no place for her to play a role in South Korea. Her only role is to lend her name.

"Buchong(부총)" and "Daehan Buin Hoi(대한부인회)" just used her name: the former was led by socialist women, and the latter by Park Sun-cheon. Knowing politically on which side their bread is buttered, they only needed her personal history as a national activist, and wanted to make propaganda. One of the greatest reasons why she was so miserable during her last years

is that she lived a life without political self-interest. This is revealed clearly by O Gi-yeong's mention about her. He described her as follows: "In my view, she has a weakness for not being able to tell someone her own sincerity and true heart. She cannot boast of herself, and take merit to herself for what she has done. Though her excessive cleanness, putting aside private affairs for public ones and not being able to insert her own interests, could persuade others, the reason why there are few people showing faith to her while she is always right is because she cannot exercise her talent for moving others to tears and always does not intend to form a party. Nevertheless, she wouldn't have resorted to trickery for good and all in many respects".

Spending her last years poorly, Jo Sin-seong finished her about 80 years of life at Sinmangae(신망애) Asylum for the Aged in Busan, May 6, 1952. To pay a tribute to the memory of her, Daehan Buin Hoi(대한부인회) passed a resolution to set May 8 as Mother's Day.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few things known about her so far. She has never been considered as a candidate for the Independence Activist This Month, which the government makes publicity, and furthermore there are no such things as the commemorative organization for Jo Sinseong. This clearly shows Korean society's consciousness on a women independence activist, who had lived a life only for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 without political self-interest.

* Key Words: Jo Sinseong, national movement, women movement, Daehan Buin Hoe(대한부인회), Jeonguk Bunyeo Chongdongmaeng (전국부녀총동맹).

논문투고일 : 2006년 3월 4일
 심사완료일 : 2006년 4월 8일
 게재결정일 : 2006년 4월 22일